

구도의 길에서 연꽃처럼 피어난 찰나의 순간을 마주하다

‘연화(蓮華) - 구도적 예술가’展...오는 13일부터 화엄사

홍신자, 신은주, 이상용, 김도희, 강석호 참여 ‘피어남’ 의미 조명
시대·경계를 넘어선 창작의 고통·예술적 성취 깊이있게 풀어내

예술과 수행의 경계에 선 작가들이 불교의 상징이자 구도의 상징물로 여겨지는 ‘연꽃’을 주제로 지리산 화엄사에 모였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는 오는 13일부터 7월27일까지 ‘연화(蓮華) - 구도적 예술가’ 전시를 열고 5명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화엄사 경내 성보박물관과 보제루에서 열리며, 오프닝 행사는 7월3일 오후 3시 보제루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는 전위 무용계의 거장 홍신자, 예술경영과 창작을 넘나드는 신은주, 현대미술 작가 이상용, 김도희, 강석호가 참여해 각자의 예술 세계를 통해 ‘피어남’의 의미를 조명한다.

홍신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아방가르드 무용가로, 오랜 시간 수행자이자 예술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이번 전시에는 80대에 이른 그가 무대에서 선보인 공연 ‘피에타’의 장

면을 스틸컷 오마주와 비디오아트로 재구성한 작품이 소개된다. 절제된 움직임으로 고통과 자비, 연민을 담아낸 장면이 감각적으로 되살아난다.

신은주는 무용가이자 예술경영인·기획자·작가·작곡가로서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예술을 수행적 도구로 삼아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작 ‘For LeeSang’, ‘예술적인 너무나 예술적인’, ‘초월’, ‘The Diverse Faces of Love’ 네 편의 퍼포먼스 영상이 오마주 형식으로 연속 상영된다.

이상용은 ‘운명 (Fate)’이라는 주제를 통해 변화하는 세계 속 인간 존재의 궤적을 탐색해왔다. 창작 과정의 고통과 삶의 흔적을 조용히 환기시키는 그의 작업은 인간성을 향한 비판적 질문을 시각적 언어로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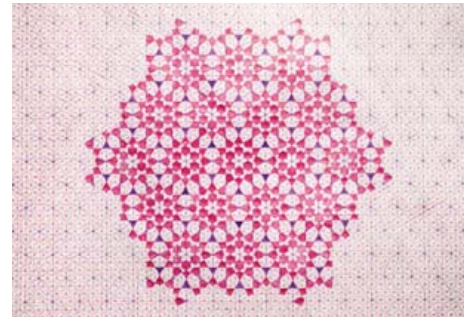
김도희는 감각과 노동, 물질을 넘나들며 기억과 흔적을 예술로 전환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대표작 ‘살갓 아래의 해변’은 선박



홍신자 공연 모습



신은주 공연 모습



강석호작 ‘열정적이면서 고요한 집중(부분)’ <사진 위>

이상용작 ‘Fate’

수리 현장을 매개로 감춰진 시간과 몸의 이야기를 끌어올린다.

강석호는 자연과 문명의 충돌과 해제를 주제로 존재의 무상성과 예술의 본질적 흐름을 시각화해왔다. 흰개미가 불경을 갉아 만든 형상은 인간이 신성시해온 지식조차 소멸하는 섭리를 드러내며, 소멸과 재생의

순환 속 예술이 놓여 있음을 은유적으로 전한다.

전시를 기획한 신은주 씨는 “불교에서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고결한 꽃으로, 고통과 번뇌를 딛고 피어나는 깨달음의 상징”이라며 “이번 전시는 그 상징성을 현대 예술로 확장하는 동시에 내면의 고통과 예

술적 성취를 조명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화엄사 교구장 우석스님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 고찰 화엄사의 공간적 맥락 안에서 작품들이 지닌 고유한 정신이 더욱 깊이 있게 전달될 것”이라며 “전통과 현대, 종교와 예술이 만나는 특별한 예술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비워낸 화폭에 스민 자연 풍경

신호재 개인전 ‘Rumination’...10일까지 인사아트센터 3층 G&J갤러리

광주미술협회 서양화분과 소속 작가 신호재가 오는 10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3층 G&J갤러리에서 개인전 ‘Rumination (반추)’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200호 대작을 포함한 36점의 작품을 통해 자연에 대한 기억과 감각을 조형적으로 풀어낸다. 자연을 단순히 외형적으로 재현하기보다 오랜 시간 몸에서 스며든 정서와 분위기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한다.

거칠고 직관적인 붓질, 생략과 절제의 미학, 자유로운 재료 사용은 그가 표현하는 자연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한 선택이다.

작가는 “자연을 담으면 담을수록 스스로 해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워냄으로써 그 본질에 다가가려는 태도를 반영한다.

그의 화면은 전통 산수화의 여백처럼 시선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며, 관람객 각자가 기억하는 자연을 떠올



‘Rumination-23022’

릴 수 있도록 여지를 둔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골판지, 화이트보드 등 일상적인 재료 위에 자연의 색과 선을 입힌 실험적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산업화의 상징적 소재가 작가의 손길로 거쳐 남도의 산천과 풍경으로 재탄생해 선보여진다. /최명진 기자

아쟁·판소리로 풀어낸 전통의 숨결

7일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

국악의 깊은 결을 전하는 아쟁산조와 판소리 공연이 이번 주말 시민들을 찾아가는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7일 오후 3시 오후 해 아홉 번째 토요일상설공연을 연다.

이날 첫 무대는 유서정의 ‘서용석류 아쟁산조’ 연주로 꾸며진다. 서용석 명인의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 장단에 유서정이 자신만의 가락을 더해 완성한 작품으로, 극적 표현력과 남도 특유의 진한 시김새가 어우러진다.

유서정은 2024 청춘사야상 수상자이자 전통음악 단체 부나비즈 동인, 철현금 보존회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어 소리꾼 조혜진이 무대에 오른다.

조혜진은 ‘제22회 명창박목주 전국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심청가 이수자이자 ‘사백연가’ 대표로 활동 중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김연수 명창이 창작한 ‘사철가’와 동초재 심청가 중 ‘환생’ 대목을 들려줄 예정이다.



소리꾼 조혜진



아쟁 연주자 유서정

악적 기교, 사설의 치밀함이 어우러져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단으로는 고수 박추우가 함께한다.

한편 이날 오후 1시부터는 ‘토·토·전’(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이라는 슬로건 아래 절기 체험, 전통 연희와 민속놀이, 한복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행사 종료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관람객에게는 다회용 타월이 증정된다. /최명진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